







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미술의 거장인 일리야 레핀(1844~1930)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보니 신기한 부분이 있었음

이 사람이 리얼리즘 미술을 해서 나는 이 사람이 사회주의와 소련에 대해 우호적일줄 알았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 새로 독립한 핀란드에 남았던 것이 정말 신기했음

당시 핀란드가 핀란드 내전으로 인해 만네르하임 등 우파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곳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이게 정말 의외인 부분으로 느껴지더라